

Petrobras, 일본은행과 차관계약

JBIC · BTMU가 10억달러 제공 ...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투자

브라질 최대의 국영기업 Petrobras가 일본은행들과 10억달러 상당의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10월1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Petrobras는 10월15일 성명에서 일본국 제협력은행(JBIC) 등과 10월12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10억달러 가운데 6억달러는 JBIC, 나머지 4억달러는 Tokyo Mitsubishi UFJ 은행(BTMU)이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Petrobras는 “차관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Petrobras가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은 처음이며, JBIC는 해당분야에서 최대규모로 차관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Petrobras는 2009년 중국개발은행(CDB)과 100억달러 상당의 차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브라질의 산타 카타리나, 파라나,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피리토 산토 등에 접한 대서양 연안에서는 2007년부터 심해유전이 잇따라 발견됐으며, 심해유전은 길이 800km, 넓이 110km²에 걸쳐 해저 5000-8000 m 지점에 펼쳐져 있고, 탐사 결과 최대 1000억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유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7>